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활성도-
ATGen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20486호 1판 (음력 4월 3일)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싱그럽다 광주의 봄 27일 광주시 북구 동강대학교 교정에 철쭉이 화사하게 만개했다. 지나는 이들은 붉고 흰 철쭉과 연초록 나뭇잎이 어울려 짙어가는 봄의 정취에 흠뻑 빠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文, 5%P 높이기 … 安, 통합내각 승부수

'선택 2017' 대선 D－11

문재인·안철수 대선 종반전략 수립 막판 표몰이

문, 45% 득표하면 무조건 이긴다 … "초대 총리는 非영남"

안, 오늘 통합정부 로드맵 제시 … "골든크로스 일어날 것"

'5·9 장미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두권 주자들이 대선승리를 위한 종반전략을 내세워 막판 표몰이에 나설 기세다. 〈관련기사 2·3·4·5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선두를 굳히기 위해, 뒤쫓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최근 부진함을 떨치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필승전략을 다시 마련했다.

◇문재인 후보=양강구도를 허물고 독주체제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문 후보 측은 외부 변수와 관계없이 자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매직넘버'를 지지율 45%로 보고, 이를 돌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철희 전략본부 부본부장은 27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현재 지지율이 40%를 넘겼는데, 45%만 안정적으로 넘어가면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도·보수층 표심이 안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 후보로 분산되는 가운데 이 둘을 합치더라도 45%를 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문 후보 측에서는 단순히 대선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집권 후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높은 득표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 후보 측은 '통합정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정책발표로 안정감을 부각하는 등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에 다시 고삐를 조이고 있다.

문 후보도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 시 첫 총리로 호남인사를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특정 지역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지만, 염두에 둔 분이 있다"면서 "총리는 '대탕평·국민 대통합' 관점에서 인선할 계획이고,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안 후보 측은 민주당 문 후보와의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일각의 여론조사 결과가 '1강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기 위해 전략을 다시 세웠다.

안 후보 측은 남은 대선기간 외부 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자체적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찾기로 했다. 우선 안 후보 측은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주말부터 당과 선대위의 모든 역량을 호남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호남에서 확실히 우세를 점하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안풍(安風)'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안 후보 측은 통합정부·통합내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28일 제시해 막판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40석 소수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분열과 대립의 정치구조를 종식해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통합비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안 후보 측은 문 후보 측의 '보수진영과 연대'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통합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주저했다.

하지만, 오히려 문 후보 측이 통합정부 비전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28일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안 후보 측은 안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워온 '미래 비전'을 계속 강조해나갈 방침이다. 선대위 전략본부장인 김성식 의원은 "조정국면에서 일부 표심이 변동성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말·휴일 '호남대전' … 텃밭 민심 잡기 '올인'

민주당, 문재인 29일 광주·전남 유세

국민의당 지도부 출동…安, 1일 방문

제19대 대선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권의 텃밭인 호남민심을 잡기 위해 오는 주말과 휴일 호남에서 총력전을 펼친다. 대선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5월 황금연휴가 사실상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고, 사전투표가 5월4일～5일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선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는 호남 표심을 선거 막판까지 다져야만 전국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당이 한 치의 양보없는 유세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주말인 29일 광주·전남을 찾아 총력 유세전을 펼친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17일) 이후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문 후보의 이번 광주·전남 총력 유세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 종반부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확실하게 표심을 다져놓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29일 오후 순천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다음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날 밤 목포로 이동해 평화로에서 총력 유세를 벌인다.

문 후보의 유세에는 지난해 4·13 총선 때 영입인사들로 구성된 '더벤저스 유세단' 등이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 유세에는 지방의원 및 당원 등을 총동원해 막판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음달 1일 광주·전남을 찾아 광폭행보를 보이며 총력 유세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선거일인 9일 이전까지 광주·전남을 두 번 정도 주 더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과 박주선 공동선대위원장, 권은희 광주시당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중심이 돼 유세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동교동계인 권노갑·정대철 고문이 호남에 머무르면서 장년층을 상대로 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9 대입 정원 76% 수시로 뽑는다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신입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가게 된다. 〈관련기사 7면〉

수시모집이 대입의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대통령 후보가 수시 모집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해 주목된다. 교과 성적 뿐 아니라 동아리·봉사활동·수상경력 등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도 더욱 확대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교의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7일 발표했다.

4년제 대학들의 전체 모집인원은 34만8834명으로 2018학년도(35만2325명)보다 3491명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로 따라 대입 모집 인원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26만5862명(전체 모집인원의 76.2%)으로 전년도(25만9673명·73.7%)보다 늘어났다. 정시모집 인원은 8만2972명(23.8%)으로 전년(9만2652명·26.3%)보다 줄었다.

비교과 활동을 주요하게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도 수시모집에서만 8만4764명(24.3%)에 달해 정시모집 선발 비중(23.8%)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여수서 10명 방사능 피폭 ▶6면

신필도유람-강원 곰취축제 ▶18면